

서 울

황지욱(동양·이란어 3)군 집단폭행으로 사망

지난 12일(수) 새벽 2시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열무이 호텔 지하에서 집단폭행 당한 후 사망했다.

이 날 황군은 친구 최태현 군의 승려와 동행했던 동생 황성욱 군과 친구들이 무대에서 가해자들에게 구타당하고 돌아오자 달려 나간 후 이들에게 집단폭행으로 구타당했다.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지만 길바닥 골절로 인한 폐 및 내장기관 파열로

사망했다.

이런 사건에서 황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 4명중 한 명이 구속되었으나, 2주전 증거불충분으로 이유로 구속직 부심에서 풀려난 상태이다.

황군의 소식을 들은 그 동기와 친구, 부모들은 강남 일대에서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등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체협에서든 줄리어나 클럽에 수사합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 열려

새내기 새로배움터(새배터)가 지난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강연도 양양의 낙산 프라자 리조텔에서 2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했다.

행사 첫날인 21일(월)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으며, 같은날 저녁부

터 22일(화)오전까지 단체별, 과별 행사가 진행됐다. 또, 22일(화) 밤에는 양양 군청에서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행사는 총학생회장 지리가 공식으로 있는 관동로 단대학생대표자회의와 99년 학생회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됐다.

동아리 연합회 전체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는 지난 25일(금) 방죽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는 1차 동아리캠프의 연장으로 △교내 배분문제 △지도 교수 문제 △11번의 목표(가성) △새내기 등이 한미당 △교육활동 등의 진행과정 보고와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구제책으로 삼켜보던 교비지급 대상의 행사결정을 분과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도교수 확보를 위

해 개별 동아리 차원에서 조사필요, 11번의 목표와 행사와 관련 동아리들의 인식개선 등이었다.

이와 관련 동아리연합회 정책국장 민홍기(사회·정치외교 4)군은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1년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계획에서 열렸다"며 "여기에 미처했던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겨울농활 진행

시험대 발산리, 동원 서호마을

사범대 학생들이 27.8%(월) 양양군 방죽 순창군 금곡면 발산리로 농민학생 연대활동(농활)을 다녀왔다.

99년 농활 재개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겨울농활은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위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사범대 농활주최 허승철(영어교육 4)은 "앞으로 겨울농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동아리연합회 학생들도 지난 12.13일(월) 순창군 서호마을에서 겨울농활을 진행했다. "농활의 완성적인 모습을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농활에 참가했던 민홍기(사회·정치외교 4)군은 밝혔다.

동아리 새내기한미당 개최 거리전, 분과별 행사 등 진행

서울 배움터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오는 3월 22일(목)부터 동아리새내기한미당을 개최한다.

이번 동아리새내기한미당은 새내기들에게 동아리를 선전하고 많은 새내기들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번 동아리새내기한미당은 22일부터 6일까지 동아리의 역사와 활동을 전시

하는 거리전과 7일부터 9일까지 분과별 행사가 진행되고 9일에는 또 전체 동아리 한미당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장 이승우(사회·정치외교 4)군은 "새내기들이 상상력과 삶의 열정이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외대 곳곳에 같이 있었으면 한다"며 새내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무역학과 등문장학금 전달

무역학과는 지난 14일(월) 2시에 교수 회관 소회의실에서 등문장학금과 유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날 행사는 무역학과 동문들 비롯해 학생, 교수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장학금당 3명이 7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또한, 이번 해부터 무역학과에 지원한 상경계열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해 유진규(상경·무역 2)군이 첫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무역학과 박진우 교수는 "등문장의 장학금 전달은 학교재정이 어려운 우리학교 경우에는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외대의 모범사례이다"고 밝혔다.

언론협의회 선거

김정진(자연·화학 4)학과 서용철(서양·영어 4)이 지난 15.6%(목) 열린 언론협의회의 선거에서 재직인원 50명중 32명이 참가해 85%의 찬성률로 각각 정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당선자 김정진장은 "여외대 언론사들이 특종으로 매체를 만들고 있는 만큼 외대학생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노조 겨울 수련회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지난 달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전라북도 남원시에 '단·임부 승리를 위한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다.

노동조합 간부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사전에 실시하던 단·임부에 대한 기초조사와 제도, 복지개선 내용을 묻는 설문조사서를 토대로 분인문과 전체문과를 진행했다. 또, 수련회 마지막 날인 지난산 등반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노조 사무부장 김은주씨는 "단, 임부를 대대해 다양한 논의와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총장동남아 순방

조규철 총장은 지난 7일(월)부터 21일(월)까지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4개국을 순방했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조규철 총장은 우리학교와 문화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간다대학과 대국 쿠라타대학의 초청을 받아 실용적인 교류협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본, 인도네시아 등 각지의 동문들로부터 학교발전을 논의하고 이들과부터 30년(한화)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으로 쌀을 기부했다.

3차 확대운영위원회 열려

3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영위)가 지난 21일(월) 재직인원 61명중 40명이 참가해 성사됐다.

이번 확운영위에서는 △등록금투쟁 상황 보고 △새터 점검 보고 △2.3.4월 사업계획보고 △등록금투쟁 결의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정책국장 김경민(공과·화학 3)장은 "등록금 투쟁을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과회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생협 근로장학생 선발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는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근로장학생 10명을 3월 말로 달간 모집한다.

선발된 근로장학생은 매점, 자판기, 식당의 편의를 점검하는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게되며, 매월 2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특강 모니터 요원으로 모집중이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특강료도 면제된다.

용 인

28일(월)~3월 1일(수) 새내기 새로배움터 진행

저항의 시대,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대 새내기 새년도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새내기 새로배움터(새배터)가 2월 28일(월)부터 3월 1일(수)까지 총합복도 운영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새배터는 예년과 달리 각 과, 단대별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행사 첫날인 28일(월) 아산신체육관에서 열린 중앙공원을 제외하고는 운영관문화관과 트리스 콘도에서 단체별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23.24(목) 양양군 75명의 새배터준비단이 학교에서 학습을 했으며, 지난 21(월)부터 23(수)까지는 새배터에서 새배터들과 함께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정학교가 새터 조장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정책국장 김경민(공과·컴퓨터공학 3)장은 "단순히 술만 마시는 행사가 아닌 대학생활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무위원 신규인사

지난달 27일(목) 교무위원급인사가 단행됐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용인캠퍼스 부총장 - 이종진 교수
△서울캠퍼스 교수처장 - 정일용 교수
△용인캠퍼스 교수처장 - 정병권 교수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 조기성 교수
△용인캠퍼스 총무처장 - 김경태 교수
△기회조정처장 - 한영관 교수
△법인 사무처장 - 김익진 교수
△서양대학장 - 서재만 교수
△법과대학장 - 이은영 교수
△삼경대학장 - 김창준 교수
△동양대학장 - 김경록 교수
△삼경대학장 - 이영환 교수
△삼경대학장 - 홍진표 교수
△외국어영문학과장 - 안영호 교수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개설

방죽 18대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의견개진 권리, 행정의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동아리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날 회의는 1차 동아리캠프의 연장으로 △교내 배분문제 △지도 교수 문제 △11번의 목표(가성) △새내기 등이 한미당 △교육활동 등의 진행과정 보고와 논의하는 자리였다.

리들의 반응도 좋다.

이에 동아리 연합회장 박정현(동학·중국어 3)은 "이곳에서 사건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동아리를 꾸리고 이것을 계기로 동아리들간에 더욱 연대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00년 1학기 교통노선 변경

교통노선이 변경됐다. 현재 운행중인 1113번은 13-1번으로 노선 통합했으며, 1500-2번 노선이 신설과 함께 학기중에 운행하던 사당동선 학교버스는 운영을 중단한다.

△ 1500-2번 : 사당역 - 예술의전당 - 남부터미널 - 양재 IC - 분당(관교) - 이마트(사당역지.호차촌) - 학교 - 예리랜드

외대문학상 시상식 열려

제 36회 외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1일(목) 외대문화주간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사범부 단선 '인들'에 주진원(동학·체코어 3), 가자 '바나나'에 신의와 서종우(동양·아랍어과 4) 소년 가자 '문동화'의 이상준(서양·노어 4), 수필 당선 '배설'의 김경영(자연·화학과 3), 가자 '사라비 기쁨' 김동진(서양·포르투갈어 4), 평론 당선 '문명에서 지아왕기' 김경영(자연·화학과 3)이다.

이날 시상식은 삼정 및 삼금 수여와 간단한 다과회로 진행되었다.

2관왕의 김경영군은 "외대 내 문학들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 문학활동의 환경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제36회 학술상은 수여되지 못했고, 시전(서양·포르투갈어 4), 평론 당선 '문명에서 지아왕기' 김경영(자연·화학과 3)은 "외대 문학상 수상은 큰 영광이지만, 시전과 평론 당선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체교수 간담회 열려

통계 경제교수간담회가 지난 22.3일(수) 양양대 인근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제 2관학 기회

단 업무보고와 설문조사 △ 부처별 업무보고 △ 교수협의회 회의 등이 진행됐다.

사람

독도탐사대 활동을 하고 온 용인배움터 독도연구회 이윤석(동학·인도어 3)군을 만나

"우리땅에 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텔레비전에 나온 새해년 맞이 해트는 장편은 독도가 아니라 울산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동쪽 끝에서 했는데 말이죠. 정부가 독도를 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일 독도탐사단 4명의 대표 중 한 명으로 독도에 다녀온 용인배움터 독도연구회 이윤석(동학·인도어 3)군은 정부의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은 80여명의 여러 학생들과 함께 독도탐사단의 이름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출몰도에 갔다. 그러나 정부가 독도를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아 대포단 8명만이 독도에 들어가 1월 1일 '독도 주권 수호' 선언식을 하였다.

"정부가 독도출입을 금하는 것은 일 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

리땅에 우리가 맘대로 들어가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라며 부당성을 밝힌 이군은 "일본이 한하는 것은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당한 일본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을 한다면 질 확률은 높다고 봐야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렇게 정부가 문제를 계속 회피하느니만 독도는 일본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동해는 일본 제제도에 sea of japan이라고 표기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동해의 섬들은 일본의 섬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그는 침착하면서도 뚜렷하

게 말했다.

한양대입학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독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다면 이를 저지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비다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군은 "간 도는 우리나라 땅이요나 국제법상 시점이 지나 찾을 기회를 잃었지만 독도만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우리학교 독도연구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룡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명복을 받들어서 72 시간의 한해 끝에 성공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95년에는 공군이 독도에 조성하는 한국어민들에

게 폭격을 시도해 3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독도폭격사건"을 생생한 두 명을 만나 실제로 3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우리 동아리가 언론사 등 외부에는 많이 인정받는데 장악 학교에서는 지원도 안 해줄 뿐 더러 관심도 없다"며 학교측의 무관심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만 찾으려는 개인적 성향보다는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하는 이군을 보며 우리 것을 소중히 지키려는 의지를 발견해 본다.

소문이 기자 uneel5@hanmail.net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대 학 일 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요일	점심B	저녁	백반	일요일
월	소고도둑탕(₩1,500)	돈육볶음(₩1,400)	소고기부국(₩2,300)	순두부찌개(₩2,700)
화	짜장면(₩1,200)	대구어묵(₩1,400)	아욱감자국(₩2,300)	비프스튜(₩3,000)
수				
목	두부만두국(₩1,300)	오무라이스(₩1,500)	오징어볶음(₩1,300)	근대국(₩2,300)
금	육개장(₩1,500)	소고기떡볶이(₩1,300)	순두부찌개(₩1,300)	삼겹살(₩2,700)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지만...

뒤를 남기지 말기,
후회 남기지 말기,
미련 남기지 말기

남기지 말아야 할것이 또 있다

음식!!!

*용인배움터 식당은 식당서점상선지 못하였습니다

28(월) 29(화) 1(수) 2(목) 3(금) 4(토)

입학식

동아리 한미당 (9일까지)

신입생 수강신청

입학식

신입생 수강신청

새내기 새로배움터

670 외대학보

LG컨설팅 중장기 발전 계획안 분석

그대로 도입은 무리수

엘지 경영연구원 경영 컨설팅센터에서 실시한 우리학교 중장기 발전안 초안이 지난 1월 25일 발표되었다. 외부 컨설팅 집단과 함께 우리학교 발전방안을 학생·교직원·교수·연구·행정·재정 등의 부문으로 나눠 사출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아직 초안이라 현재 우리학교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엘지측은 현재 대학경영을 지식화, 정보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진단하며 전문인력의 배출, 사회구성원의 자각목표 수용을 위해 학단 시설, 정보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경영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의 경우 중앙일보 대학평가도 순위를 기준으로 재정/경영 부문(60위)나 교수 연구업적(38위) 등 대학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순위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를 차별적인 경영수위 확보를 위해 대학의 자립방향 및 목표를 세밀하게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전략

(새로운 방향 설정),자원(다양한 자원 확보 및 필요 역량 육성), 속도의 세가지 '경영'체제로 가이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학생·교육 부문에서는 차별화되지 못한 외국어 교육과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여건 수준을 문제점으로 들면서 학사 행정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어른 계열 모집정원을 점차 줄여서(수도권 대학의 경우 모집정원 증원은 불가능하다) 사회과학 등 비이론계열 모집정원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용인배움터의 경우 영어, 일본어, 중국어과를 존속시키고 다른 언어학과는 서울배움터로 통합하자는 계획이 그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건과 기획한 교육·학사위원회의 위원 신형욱(목일교과)교수는, "학교 특성 이해분야에 주력해야 하는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계획인 듯하다"며, 부위의 특수성을 나타내지, 특히 이 부문의 서울을 배움터나 중장기 발전계획안과 맞물려 있

는 내용이라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교수, 연구 부문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보다 연구성과가 현저히 낮고 연구 인프라나 분위기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무수 교원 확보(26명 증원 필요) △교수 업적평가제도의 개선 및 도입 △교수 보상체계 개선(업적금, 연봉제 도입) △연구수 체계 정비 및 활성화와 △산학협력체계 강화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안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재정 부문에서는 수입규모의 열세상이 대학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진단하며 적극적으로 발전 기금을 모으겠다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예산 관련조치와 프로세스의 정비기 시급함을 지적했다.

그 밖에 행정구조의 개선사항, 환경부문의 전략적 발전들의 과제와 보고사항으로 제출되었다.

대학부
Soma-j@hanmail.net

교원 신규임용 세칙

'투명성 확보' 공감대 얻어

세로 만들어진 교원임용세칙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전까지 교원확충과정에서 계속 제기됐던 일부 교수들의 입김 작용에 대해서 뚜렷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했다는 의견이다.

이해에 확정한 교원신규임용세칙은 전 공직사에서 외부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두 번째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개정과정에서 교수들이 외부심사 결과에 종속되는 10%를 차지하는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쳐 외부심사의 본래의 취지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다.

개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이전에는 총장이 직접 외부의 전문교수 3명을 지명하던 것에서 3명의 외부대학에 심사를 의뢰하게 했으며, 수정된 1회 시행되는 인사위원회회를 두 번에 나누어 첫 번째 심사에서 학과심사를 거쳐 결정된 1순위의 후보의 수를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첫번째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반례를 경우 열리는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서는 순위를 결정하거나 반례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전공심사시 공개평가의 평가에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참여에 대학교, 대학원 대표 각 1인이 학생들의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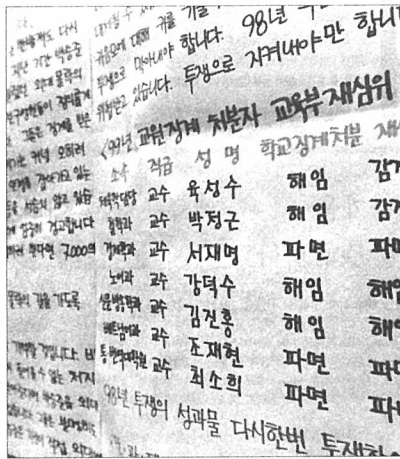
가서를 취합해 이를 학과심사교수들의 참고자료로 쓰게 했다.

이렇듯 세칙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2000년 11월, 법학과, 영어학과 교수임용과정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상당수의 교수들은 교원신규임용세칙과는 별도로 학과심사 교수임용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학과들의 교원확충을 선차적으로 해결 하자는 입장이었으므로 드러났다. 또한 교수협의회가 이러한 교수들의 입장을 이사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올 현재 30여명의 교수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인사규정은 세칙의 9.10조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심사 공개강의에서 학생들이 참여가 실질적인 평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평가를 참조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아야 할것이다. 박수용 기자

제 2조(용역직) ②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③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④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⑤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제 3조(교원임용) ①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②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③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④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⑤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⑥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⑦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⑧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⑨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⑩ 해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실시한다.



징계교수들 복귀 움직임

학생측, 적극적으로 대응할 터

지난 11월 징계교수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이번엔 강의를 재개하는 교수들은 최소 10명(홍만익(화학), 유상수(생물학), 박정근(화학), 서재명(경제학), 김석수(노이), 김진홍(신문방송), 조재현(트레닝) 7인)으로 98년 징계당시 해임이사 중징계를 받았던 교수들이다. 이로써 98년 재단투쟁 당시 구제단 비호적으로 징계당한 14명의 교수 중 심재일 교수를 제외한 모든 교수들이 강단에 다시 서게 됐다.

이렇게 징계교수들이 강단에 서게 되는 것은 교육부 재심위원이 징계소관 결을 받은 당시부터 예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재심위원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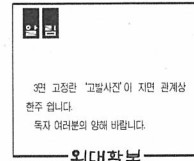
하지만, 이에 대해 단과대학대표자협의회 의장 이상수(사회·정치·경제)교수는 "98년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대 구성원의 심판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후 복귀 교수들의 움직임을 고려해 수업개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구제단 세력의 복귀를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생각은 98년 재단투쟁 이후 구제단 세력의 복귀를 막는데 있었던 사립학교법 개악과 그에 따른 우리학교 국정감사 당시 복직결정을 받은 교원의 복귀와 강의배정을 자각당한 사실 등을 고려한 듯 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소관 결을 받은 직원 9명 전원도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당국은 이들에 대해 부서결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복귀하는 직원들로부터 반성문과 자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정 모 군

정현도

가까운 친한 친구의 파문의 OXX TV로 복귀합니다

벤츠를 사들일 줄도 모른다.

가까운 친한 친구의 파문의 OXX TV로 복귀합니다

대체적인 공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섯이 공천명단에 오른 40여명의 공무수 의원을 지지한다

망동이다 웬디너니

98년 재단 비리연루 교수들마저 어느새 복직되었다

대체대비 부하님 나리도 아니고

확, 이미에 낙인도장을 찍고 있다.

외대인 여러분은 학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습니다 - 첫번째

외대 학보

여기로 신청하세요
서울) 961-4151 외대신문사
961-4152 학보 학생기자실
용인) 0335-330-4112, oedae_press@hanmail.net

배달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커피한잔에 학보를 읽고 싶다"
"군대간 그 선배, 학교가 그리울텐데..."
"타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생각나네"

주문만 하십시오

외대학보 철가방은 독자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민족자주권론 외대학보



6·7 2000년 3월 2일 755호
주제 기획

왜 그의 죽음에 남·북·

故 김양무 선생의 투병일지

"암투병이 곧 통일운동"

▲ 1998. 10월 9차 범민족대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네 번째 구속.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도 중 열변증세를 보여 인양병원으로 이송. 직장 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치료를 받음.

▲ 1998. 11. 26 전남대병원에서 성공적인 직장암 수술을 받음.

▲ 1999. 1. 5 수술결과가 좋아 범민련 남북 분부 활동을 재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추전 10차 범민족대회(범민족통일대추전) 남북주진본부장 추대. 암투병을 하면서 모든 난관과 탄압을 헤쳐 간다는 정신력과 의지를 발을 극대화해 맨 앞에서 통일투쟁을 전개. "전국 곳곳의 기층단위에서 범민족 대위로 모이자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다. 대중을 믿고 대중과 함께 가는 길이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중단결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동 속에서 범민족대회를 치러냈다."

▲ 1999. 8. 10 병원에서 병세가 거의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음.

▲ 1999. 8. 16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추전 10차 범민족대회(범민족통일대추전)의 장소인 서울대에 들어가면서 한자의 품으로 낙성대 역에서부터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뛰어 들어감. 서울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서울대 학생자정을 만나 평화적이고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승낙을 받음.

범민족통일대추전 이후 범민련 지도부에 대한 사전 체포영장 발부 등 정권의 탄압이 계속되자, 박종관(12기) 방청하러 통일선봉대 총대장, 문재현(서울지역본부본부장) 등과 함께 병동실에서 농성을 진행.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범죄, 경제침탈 분배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공안탄압 분배'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결성.

"우리가 망명생활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단지 체포영장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상대해 치러진 범민족통일대추전에 모인 사람들의

힘과 뜻을 모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결시켜 연방통일조약으로 가는 길목을 만들고자 함이다."

김양무 부의장은 암환자로서는 전과가 힘든 전막생활에도 언제나 투쟁하는 아들에게 조국통일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 1999. 8월~10월 "이번 범민족통일대추전과 전막농성의 생활에서 그는 환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정도로 지칠 줄 몰랐다. 그런데 지난 9월 18일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불었다. 그때부터 등과 허리가 심하게 아프더니 10월 1일 부위는 아주 심하게 아파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여론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양무 부의장의 치료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그대만 체포영장을 취하지 않는 반인륜, 반도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막농성 기간에도 김양무 부의장은 체취주의의 사생활과 건강관리를 염려하여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가장 초보적 치료인 병원치료를 길을 막았고 화병의 깊에 있던 김양무 부의장의 병세는 점차 악화되었다.

▲ 1999. 10. 22 병세가 악화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입원치료를 권유하지만 끝까지 함께 노력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결국 보타못한 사람들이 입원 수술을 받고 김양무 부의장을 오함 병원에 입원시키려 함.

검사결과 양세포는 간, 폐, 림프관 등으로 몸의 각 부위에 전이되었고 특히 흉추 8번에 생긴 종양으로 허반신이 마비될지경이었다.

▲ 1999. 10. 22~11. 4 입원 후 김 부의장은 생식과 약침, 약물치료를 계속 입원 초기에는 호소를 통해 몸 속의 피로감을 불렀다.

"나는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9년 반을 병원을 갔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암은 암으로 죽지만 양에 대한 공포로 죽는다고 하는데, 왜 양에 대한 공포가 없었나. 시시각각 들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국 통일을 위한 희망을 생각하면 그런 공포는 아무 것도 아니다."

병든 육신까지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겠다는 김 부의장의 의지는 암의학으로 정량화 난 이 복으로의 방물치로 삼사투쟁으로 이어졌다.

▲ 1999. 11. 5 김 부의장의 방목치료 상사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됨.

부인 양은찬씨와 남북한의 공동대책위는 반통일, 반인륜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김대중 정권의 잔인무도함을 알려내면서 김 부의장의 방목치료 상사를 위해 노력했다.

국내 언론 또한 김 부의장의 소식을 보도했고, 방북치료 상사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에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려는 김 부의장의 숭고한 조국통일에 대한 정신은 더욱 더 확산되었다. 국민적 여론은 하나같이 김 부의장의 방북하원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 1999. 11. 12 부인 양은찬씨 등을 김양무 부의장 한 부속국민참여선서를 통일부에 제출.

북한에서 암치료제 보내와

▲ 1999. 11. 19 평壤의 제일본부에서 보낸 암치료제 '오스틴스' 도착.

김 부의장의 투병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세계각지에 있는 범민련을 비롯한 동포들이 한자에서 약효를 본 암치료제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 1999. 11. 24 범민련 북측본부 및 적십자사에서 김 부의장의 암으로 방북 초청장을 보냄.

▲ 1999. 11. 26 평壤의 공동사무국에서 방북치료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함(12. 4 불허 통보).

▲ 1999. 12. 1 북측에서 보내온 암치료제 '장명' 10명과 암상, 그리고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에서 보낸 김양무가 도착.

"장명"은 스위스 국제의약품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약효가 알려진 건강보조제이다. 김 부의장의 주치의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용을 허가했고 '장명'의 복용 후 김 부의장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도 했다.

▲ 1999. 12. 17 "나의 건강, 아름까지도 조국의 통일에 가까이 바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투쟁을 조국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투쟁의 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와 김 부의장의 방북제제를 이유로 통일부에서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 적십자회에서 다시 초청장을 보내왔다.

▲ 1999. 12. 25 범민련 남북본부 송년하마 담이 한양대에서 치러졌다. 송년하마담에서는 김 부의장의 치료비 마련과 방북치료 보장을 위한 주점을 진행했다.

▲ 2000. 1. 2 홍북에 들어 차고 차량으로 인

해 배가 드러나는 등의 상황에서도 김 부의장은 "월이면 완쾌할 것이다. 병이 나으면 다시 사람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며 완쾌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있었다.

▲ 2000. 1. 3 병세가 급격히 악화

북한에서 보내온 '장명'이 병세호전에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완치를 위해서는 방북치료가 필요했다. 김 부의장의 소식을 접한 북한에서는 '장명'을 보내는 것과 함께 김 부의장을 치료할 병원을 북한의 '고려의학(한의학)'으로 숙련된 의사들까지 배치해 놓은 등 치료를 위한 모든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계속적으로 방북을 불허했다.

죽어서도 평壤에 가야한다

▲ 2000. 1. 20 가세가 계속 생기고 할노가 나오는 등 상태가 악화됨. 오후부터 산소호흡기 사용.

CBS 라디오 방송국 '시시각각'라는 프로그램에서 부인 양은찬씨의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양씨는 인터뷰에서 방북불허는 물론 치료를 위한 일본 방문마저 허용하지 않는 정권의 반인륜상을 규탄했다.

▲ 2000. 1. 21 가슴에 찬 물과 가래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하루종일 산소호흡기 사용. 오후 한양병원으로부터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병이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양양동 고대병원으로 옮김.

투병대책위 차원으로 다시 방북신청을 하려 했으나 지난 12월 17에 통일부가 불허했다 후 북측의 초청장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조차 하지 못함.

▲ 2000. 1. 22 계속되는 진통제와 수면제로 통증을 계속하여 잠을 이루지 못함. 그러나 물을 마시고 곁에 가래를 뱉는 등의 호전 증세를 보이기도 함.

김대중 정권은 간호사를 통해 죽음이 목적인 상태에서 적절한 자투를 받고 있는 한자의 통탄을 시시각각으로 살피는 반인륜상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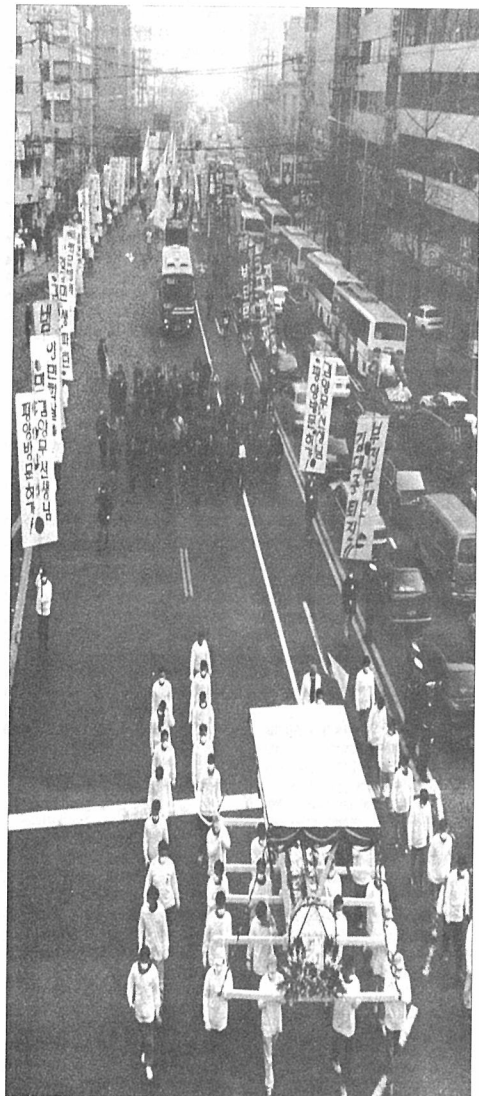
다.

▲ 2000. 1. 25 육상으로 인해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

오후부터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던 김 부의장은 결국 이날 밤 20시 14시 분 "꿈

주로 거기 전에 평壤에 가야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조국통일'로 재직된 50년의 삶을 마감했다.

정리 최희영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멀티미디어 프론티어-삼성

년 내가 줬어!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너따라 노트북은 없으니까.

SENS 센스 아카데미 특별 판매

대학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장선! (기간: 27 ~ 3/15)

제품	모델명	제품 사양	특별판매가
노트북	S820-A1	인텔® 펜티엄® III 프로세서 450MHz, 64MB, 13.3" 6GB	₩2,800,000
	S630-A1	인텔® 펜티엄® III 프로세서 433MHz, 64MB, 12.1" 5GB	₩2,040,000
임팩트프린터	9110-1K14	winCE 탑재, 16MB	₩470,000
	MJC-9020	1200dpi, 6PPM	₩225,000
레이저프린터	ML-5052S	8PPM, 600dpi	₩417,000
	디지털 카메라	SCC-80	85만 화소, 누드 디자인

※대형고대: 전국 대학생 및 교직원 ※구매방법: 현장 방문 또는 삼성 학원점 구매 가능(36개월 할부)

인텔® 무조건 2년 보증!
삼성 가전용 센스아카데미를 구입하시는 분께는 삼성 컴퓨터 센터 및 삼성 인텔 서비스 센터, 자이언트와 자이언트 인텔 서비스 센터로 정속할 수 있습니다.
www.zaigen.co.kr

테크노 박, 할인 구입!
삼성 가전용 센스아카데미를 구입하시는 분께는 테크노 박, 세계 각국에 있는 할인점과 연계를 드립니다.
(소매가) ₩148,000 → **특별가 ₩70,000!**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

디지털 시대를 앞서는 경쟁력 - 삼성 센스

해외가 주목하는가?

남북해외의 동시 장례진행... 통일위한 방북투쟁 계속될 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88평창대륙 전 10차 범민족대회'의 남측추진본부장을 맡아 왔다가는 생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활동을 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상임부의장의 타계는 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과 해외에 있는 동포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와 해외본부는 김 부의장이 직접장으로 무병할 때 안치료에 뛰어난 '장병'을 비롯한 아픔을 보내주었고 또한 북측본부는 북한의 발달된 고려의학(한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수배자이며 북의 치료를 허락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방북치료를 막았다. 또 북측본부에서 두 번째 초청장이 온 후 다시 방북치료를 신청했으며 통일부에서 '두번째 초청장'은 후 다시 오지 않았다며 방북치료를 가로막았다.

이러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동에 맞서서 김 부의장은 자신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민노파 통일한다'라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고향인 광주로 가기 전에 평양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故 김 부의장의 장례식은 남·북·해외가 동시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대학과 각 지역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범민련 유럽지역본부의 추모사와 추도사를 비롯하여 재중조선인본부, 재독동포협의회, 범민련 캐나다 지역본부 등 해외각지의 추도사와 추도사가 보내져왔고 남측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전국농민총연맹(전농),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각계 사회단체들의 애도 성명이 발표되었다.

故 김 부의장과 그의 유가족을 북으로 보내기 위한 움직임은 그가 숨을 거두 순간부터 명에 돌릴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장례식 하루 전날인 2월 12에는 반인륜,

반통일 김대중 정권 퇴진과 故김양무 상임부의장의 통일지지 실현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진에서 경찰은 故 김 부의장의 영장을 빼앗아 부수고 짓밟는 모습도 보였다. 이 날 행진에서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는 학생들과 그들을 가로막는 전투경찰 사이 몇차례의 몸싸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강력한 투쟁으로 김 부의장의 영장을 짓밟은 경찰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고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학단 받았다.

故 김 부의장의 장례식은 13일 서울(광주)과 평양, 도쿄 등 해외각지에서 연속한 가운데 치러졌다. 남측장례식은 오전 7시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발인식과 영결식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치러진 노제는 각계사회단체와 청년,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슬픔과 분노 속에 서울 등대문 앞 규탄대회와 종교문화 노제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시각 임진각과 통일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김대중 정권 규탄과 광양 방문 보장을 위한 학생들의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례식까지 가로막는 정권과 경찰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투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고인의 영구차를 따라 15대의 버스가 광주로 향하려했으나 전투경찰의 제지에 의해 1시간정도 지체되었고 저녁 9시 30분경 광주 운암동에 도착하여 관주에서의 노제를 지내고 새벽 5시 통일예배당에서 김양무 범민련 상임부의장은 망월동에 잠들었다.

김 부의장의 타계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싸우다 김정권에 의해 살해된 민간통일운동가의 탄압이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노파 통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어자라도 평양에 가겠다는 김 부의장은 자신의 방북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조차 치료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김대중 정권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故김 부의장의 유품과 유가족들에 대한 방북을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남 기자

故 김양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의 부인 양은전 씨를 만나

“이제는 내가 통일희망가를 부를 것이다”



현재 실정은 어떠한지

의외로 편안하고 답답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무감각하다. 선생님이 살상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의연하다. 냉철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다. 어제는 참 많이 울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이 관한해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 다 마음이 편하다.

타계할 당시 김 부의장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가?

산소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숨이 고르지 못하고 계속 험들어하시면서 밤을 애타게 기다렸다. 한참을 오랫동안 참고 계셨다. 딸을 마지막으로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생전처럼 가장 편안한 모습이었다.

故 김 부의장께서 남기신 유언은 없었는지

없었다. 단 한통련학생들에게 '너네들이 있어서 각국이 안 되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방북치료를 받으려 한 현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북한에서의 치료를 계속 받았

가에 나중에는 방북치료를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김정권에 관용하게 막았다. 선생님이 일본에 가면 평양에도 갈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는 죄송같은 정부, 인간성이 제거된 정부, 생명체가 제거된 정부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 치료를 하면 병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안타깝지 않은가?

물론 북한에서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북한에 가는 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선생님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드리고 싶었다.

앞으로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모범에서 활동하시기로 하는 방향이 있다면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그 슬픔을 최대한 알려나갈 것이다. 통신문이나 인터넷에 내 울음을 토할 것이다. 현정권의 반인륜적인 작태를 최대한 알려나갈 것이며 통일희망가를 한창 부를 것이다. 선생님께서 진행 통일을 위해 고고지 했던 길을 나도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다.

전대민 공동기자단



각계 각층 반응

노제막는 정권에 분노 -이혜영(서울)

서울 시민 이혜영씨는 노제 행사에 대해 "감동적이에요"라고 말하며 "통일을 위해서 분투하신 분을 보니 감동적이에요"라며 눈이 붉어진다. "중국에서 온지 3달이 되었는데도 '통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네요'라며 끝내 눈물을 흘리며 행렬을 쳐다본다.

또, 전투경찰이 노제 행렬을 막는 것을 보고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빨리 빨리 보내주지, 왜 막아"라며 "너희 부모님 죽었을 때나 막아라. 나쁜 놈들..."이라며 경찰행렬에 대해 욕을 서슴치 않았다.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태우나 전두환과 똑같이 도둑놈이지"라며 "정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라고 정부에 대해 원망하기도 했다.

"방북투쟁은 당연히 해야지" -이용진(광주 효령동·52)

학생들의 첫 행렬부터 따라다녔다는 그는 민주와 운동을 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술 배설을 즐기는 그를 만났을 때는 학생들이 시내 선전전을 받고 있을 때였으며 그는 망월동까지 따라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김양무 선생의 방북투쟁은 당연히 해야지. 비록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줘. 내가 밀어줄게. 또 가난한 사람들, 민민들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야 해. 당신들 끝까지 투쟁해. 죽어도 소원은 민주화야..."

학생들, "시민들 관심 많아"

14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인물을 길거리에서 걸고 있기에 그 중 한 명의 남학생을 만나보았다. "대경총련 소속인데요"라며 자신의 소개를 한 학생은 "시민들이 행렬을 보면서 저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김양무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유인물을 나눠줘요"라며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유심히 듣고 몇 명은 군데 행렬이 왜 이렇게 크냐고 묻죠... 그래서 대답을 하면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헛바치고 해요"라고 말했다.

해외각계, 애도표하며 김정권 규탄

故 김양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이 직접장으로 무병 중에 범민련 북측본부와 범민련인민지역본부에 안치료에 좋은 악을 故 김 부의장에게 보낼 만큼 故 김 부의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특히 북측본부는 故 김 부의장이 방북치료를 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다.

범민련재중조선인본부, 범민련유럽본부, 재독동포협의회, 범민련캐나다지역본부, 범민련일본지역본부 등 해외 사회단체들은 김 부의장의 타계에 애도를 표하며 추모사와 조사를 보내왔다. 또한 범민련 북측본부는 남측본부에 초청장을 보내 故 김 부의장의 뜻을 받들어 김 부의장의 유가족과 유품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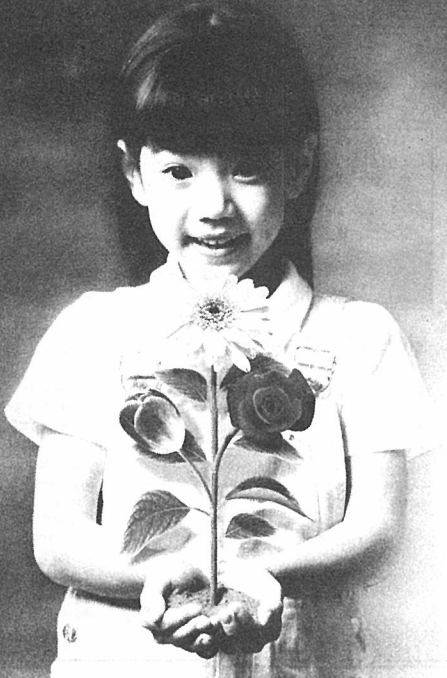
이들은 조사를 통해 김 부의장의 타계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앞으로 김 부의장의 뜻을 이어받아 조국의 통일을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의 치료를 위한 방북을 가로막는 반인륜적이고 반통일적인 김대중 정권을 규탄했다.

사취부

www.lgchem.co.kr

생명과학으로
꽃 피우는 새로운 천년,
LG화학이 만들어 갑니다



가야에 시달리지 않는

풍족한 세상,

암과 같은 불치병이 없는

건강한 세상,

더 이상 공해가 없는

깨끗한 세상,

LG화학의

생명과학기술이 만들어 가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꿈을 실현합니다
LG화학

대학문화

성폭력학칙 제정

쉴! 성폭력 죽이기

감각스러운 지하철 연호로 1교시 수업에 5분을 늦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강의실. 교수님은 나를 보자마자 "그렇게 화장할 시간 있으면 수업에 늦지 말았지."라며 무안을 준다. 그 뒤 나보다 더 늦은 남학생에게는 아무 말도 없다.

우리는 이런 경우 그날 교수님을 아슬아슬하게 웃어넘겼을 뿐 이것이 성폭력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성폭력이란, 강간, 음란, 강간강요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폭력,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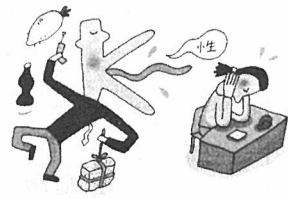
"대학을 흔히 진보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대학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공간으로 사회와 별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그 구성원들 역시 사회 생활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성을 키워내 왔다"고 전하는 서울메이커 여학생위원회 하은주(사법·법고 4)장은 대학이 사회적 폭력이 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1994년 8월 S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 뒤 실시한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3%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점이 그 심각함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발생시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학내에 정해놓는 것으로, 성폭력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소모적인 감정적 대립 없이 공정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학생회측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는 '자치규약'이라는 점과 실제적인 권위를 지니고 활동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음란매물터 참여학생회에서는 지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한 공청회(수정안)를 다시 상임했다. 또한 서울메이커 여학생위원회와 연대하여 성폭력 학칙제정을 하기 위해 지난 방학동안 합의를 했다. 이에 음란매물터 참여학생회 부회장 최고은(사학·노어 4)장은 "성폭력 학칙은 여학생들을 위한 한 가지 아니라 외대 일반 사생활을 위한 것이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학칙제정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외대인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칙제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미 학칙제정이 된 학교는 동의대와 부산대, 그밖에 서 울대, 삼남대, 연세대 등 많은 학교에서 꾸준히 학칙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97년도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의 성폭력 근절 연합모임인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 연대회의'는 고려대, 동국대, 이화여대 등 현재 14개 대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를 연합해 있는 회의기구로서 성폭력 학칙제정, 성문화 변화와 성폭력 방지 등 여러 학내 단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연대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윤홍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우리들 슬러쓰기

질경이, 땀꽃채꽃, 말뚝굴레

00학번 세미와 함께 조은희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향기롭고 싱그러운 꽃과 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말 이름에는 자연에서 빚깎고 무늬를 받은 것들이 많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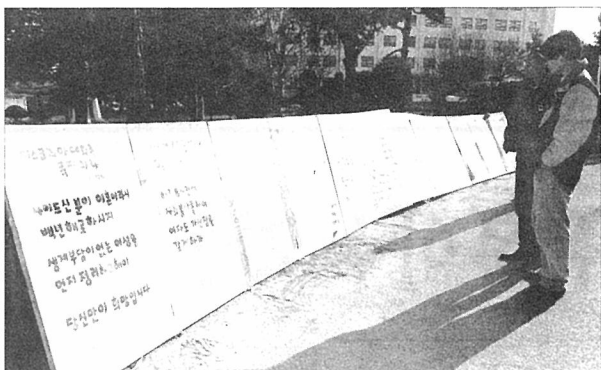
백구기가 울기 시작할 때 피는 꽃이리해서 이름지어진 뽕꽃채꽃.

말뚝굴레가 붙어 말뚝, 소뿔을 열심히 뭉쳐 굴리는 굴레에 피는 꽃이리해서 말뚝굴레 (이 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들레 꽃입니다).

생명력이 모질고 끈질기다고 해서 불어질 질경이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하나되는말글살이우리말연구회>



대학내 여성운동 현황



대학에서 '진짜' 여성으로 살아가기

젊은 화장에 속았나 더러워진 젊은 치마를 입고 흥선으로 부풀린 가슴을 스스로 아무런지름기 가지지 않기로 "연날 하세요, 저는 미스XXX입니다"

홍포로구나 대머리 빠지지 않는 미안신발화에서는 대머리의 남자가 우스꽝스러운 여장을 하고 나온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우리 주변 여학생의 평범한 모습이다. 이는 바로 남성의 눈에 비친 여성의 모습인 것이다. 눈앞에 있었던 일, 과거의 경험, 흥미로운 이유로 벌어지는 이 행사에 혹은 누군가 문제제기를 한다. 분위기가 무뎠고 하는데 '원 만장한 만장'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본다. 어느새 내내 눈앞에 있는 '집단적 성폭력'으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열일곱 서울메이커 봄은 관중에서는 여학생위원회의 준비 위와 같은 학내 잘못된 성문화를 고집해주는 거리전이 열려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대학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그들 스스로 목숨을 내지 않는다면 그분들만 바리게 되는 잘못된 구조 속에서 대학내 여성운동은 태동했다. 우리학교에는 서울메이커 여학생위원회, 음란매물터 참여학생회가 있다. 이들은 성폭력 학칙제정 등과 같은 학내 올바른 성문화정착을 위한 노력부터 공간안전배치, 기차통행시행등의 여성인권운동, 또한 여학생 휴게실 등 복지시설,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 역할과 위상에 있어서는 서울메이커 여학생위원회는 문예감각제정의, 생활도서관과 함께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인준돼 그 활동이 학생들의 선거운동 등에 세심한 학생자치기구인 참여학생회보다 그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대내 여성 운동은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선전전, 대중제 행사, 성폭력 학칙 공청회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고민을 풀어나가는 점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물론, 여성운동을 하는 일꾼들이 부족했던 것, 학생운동이 전체적이든 소수 활동기반의 활동이 었기 때문이었다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체, 과, 학생회에서의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의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과 학생회 일꾼들에게도 여성운동은 생소하고, 고

민의 수준 또한 낮아 여학생행사는 부분적으로 치러져왔다. 특히, 여학생위원회의 경우 참여학생위원회 지시기구가 아니라 중앙운영위원회 발간권도 포함 없다. 그래서 참여학생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 어려운 점, 또 그 활동이 위축되는 점이 여학생위원회의 한계점이다. "실질적으로 여학생위원회의에서 이번 서울메이커 사태에서 상에 대한 강연을 기획하고 각 단위로 제안을 보냈지만, 단 한 단에서도 관심을 가진 곳은 없었다"고 여학생위원장은 하은주(사법·법고 4)장은 아쉬움을 전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학내 여성운동의 문제점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생회 일꾼의 교양이다. 학생회 일꾼들의 과감적인 무적이다. 일꾼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단위는 실제로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진 이(4)장은 "각 학생회 일꾼들과 왜 여성성이 중요한지, 세터가기 전 혼수, 놀이문화에 대한 고민이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와 이런것은 바뀌어 한다'고 생각하는 일꾼들이 가지지는 의미는 크다"라며 실제로 경희대의 경우 일꾼 교양학교 사업을 통해 이미 혼수문화, 미안대회를 통해 학내에서 사라지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둘째, 풍부하고 다양한 여성학 강의로 올바른 여성관이나 성문화를 대학내 정착시키는 것이다. 외대는 여성학에 본이라는 교과목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성학의 매개이화여대에는 스무강좌도 넘는 여성학 수업이, 경희대에도 7개 이상의 여성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조건 강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론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포괄적인 역사를 배우는 식의 연계성있고, 단상계는 여성학의 교양과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학 소모임의 활성화이다. 경희대의 경우, 문대대, 외대, 지리학과 등 5개의 단과대와 여학생회가 있다. 단과대나 과 등의 소모임을 통하여 존재하는 상충조치는 그 소모임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 대학내 여성운동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윤홍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새활시평

음란한 것은 상업적이다(?)

영화감독, 제작자 구호는라게로 있고 있는 영화 '거지' 말 사태와 관련한 시민단체 활동토론회가 지난 2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음란물' 혹은 '예술작품'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제작자와 감독을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음란물'은 어떤 토론회의 속에서도 강력한 반으로 불매운동, 사법처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한다.

나는 그냥 다른 생각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패색이 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사실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그들의 결정은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사법처리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삶과 문화에 대한 철학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다. 발제를 포함한 음란물을 지지하는 토론자들은 문화라는 것이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한다. 하지만 음란물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문화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 음란물의 주장은 두가지 자기 역설이 숨어있다. '상업성을 포함한' '음란물을 논리적으로 드러낸' 음란성이란 판단에는 '모든 음란한 것은 상업적이다'는 절대 가치를 은연중에 싣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는 음란물의 기준 설정 자체가 무의미한, 문화를 판단하는 일종의 절대성에 대한 신념이 음란하게 되기 때문에 음란물의 상업성에 대한 판단은 상업성을 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할 때만 가능하다.

물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용해가 존재해 있다는 것이다. 어느 토론회자의 지적대로 성숙한 문화세상을 기대한다면 거지말 같은 영화는 보기에 역겹더라도 일단 보고 대화해볼지 않겠는가? 성숙한 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며 다양한 볼 권리가 보장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거지말이 상업적인 쓰레기이며 청소년의 삶을 파란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논로 논적 상성력과 종교적 절대신념이아말로 위험한 것이 아닐까?

문화부장 oedee98@hanmail.net

생각바꿈



10분 일찍! 외대인의 '코리아 타임'

5분씩, 10분씩... '코리아 타임'이라는 별명표를 언제쯤 벗어날까요?

시계를 들여다 보면 발을 동동~ 주인공은 가장 늦게 나타나는 속살을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약속장소에 10분씩 일찍 도착하기~

새로운 '코리아 타임'을 만들어 보자구요!

청년문화

새작



'버클리공의 사랑 노래'

"후로로" 낯설면서 소리에너워어보면 그 의미가 저절로 와닿을 것 같은 이 단편의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황동규 (62) 시인의 언어이다. "외로움을 통한 혼자 있음의 환희"를 의미하는 말이다. 황동규 시인의 열한번째 시집 '버클리공의 사랑 노래'는 바로 이 홀로움을 노래한 시집이다.

98년 1월부터 반년동안 미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에서의 교환교수 생활과 그속에서 자랐던 고독, 내내(내외)의 중앙을 재가하며 겪은 병상 체험, IMF 경제위기 속 사회 전반의 고통을 함께 고쳐나 내면의 아픈 울림들이 50편의 시에 담겼다.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지난 1998년 한승원의 대표작으로 북녘평화당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했다.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 구술된 황선(덕성여대 94학번)의 판자와 시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평양 소주를 '차고도 순한 술' 이라고 부른다는 '북녘동포들의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이북은 북녘대학생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진정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

인터넷

http://www.cyberayouth.org



청소년 문화 발전소라고도 불리는 청소년 웹진 사이버유스는 '청소년 사이버 의회'를 필두로 하는 본격 토론 게시판과 함께 '지리', '세상을 하고 살아 가기', '우리 SEX' 등과 같이 경험을 토대로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진이다. 또, 사이버유스는 그지 랍공간의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공간에서 '이러기 반개' 등과 같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주장을 담고 있는 이 사이트는 현재 또 다른 청소년 웹진 C110과 함께 청소년 웹 연대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첫번째 웹연대는 '교실 밖'이라는 현상에 대해 언론이 떠벌어 대는 것에 대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영화

98에서 99까지 (외대학자 정리영상)

올해 사회대 새터에서 상영한 영상물들 98년부터 99년까지 외대에서 있었던 학원자주와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볼 수 있는 것이다.

98년에는 330선언과 총파업을 주 내용으로 (일시적이었음) 외대 3주체가 함께 한 승리의 감격을 담고 있으며, 99년도 넘어 가면서는 학사행정, 교육비 개혁,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내문제만 바라보는 인위라는 다소 추상적인 회담을 던지고 있다.

학내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한 자료화면으로 보여주었다는 점과 특별한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가 교양으로 활용될 만 한 자료라는 생각이 든다.

단,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길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교양교과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여문의 : 학과 1층 영상실/ 961-4655
기획 : 13대 통일사회대 학생회/ 제작 : 애국대대생
시업단

상영시간 : 9분

<외대영상사업단>

서울 배움터 새내기 새로 배움터

“새내기, 시대를 고민하는 삶의 주인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마친 학생들은 새내기들에게 자주적인 삶으로의 안내를 해주기 위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중앙공원 주제는 “새나기를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한다”였다. 새터 기간(2월~23일) 중 둘째날 열린 중앙공원은 저녁 7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열린 체육관에서 열렸다. 외대 공돌이 연합의 공연으로 시작된 1부 축하 공연은 율동계 신배의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의 율동으로 이어져 분위기를 달구었다.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민중가요와 우리나라의 축하공연이 이어 새나기 참가자 시간에는 3개팀의 참가자들이 있었다. 이날, 새나기들은 성대모사와 노래를 인상 반대 투쟁을 묘사한 권투시합, 그리고 큰 호응을 얻었던 이태원과의 차례 공연 등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발산했다. 2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기부

채 해결, IMF 2년 안에 탈출, 국가보안법 철폐, 교육 재정 8% 확보’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고공비행하는 부모님들과 농민들의 모습과 함께 반민중적인 김대중 정권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내용의 영상물이 선보였다. 영상물에 이어, 총극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현실과 운명을 바꾸는 게 새나기 자신이라는 내용이 공연됐다. 중앙 공원을 준비한 함해민(문예갈래협회)의 의장, 중앙·일본어 4학년 “새나기들에게 현 시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화두를 던져주고자 했다”라며 공연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새나기들이 참여하는 새나기 문예단과 같은 새나기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터 중앙공원이 되지 못했고, 기조와는 달리 주인공으로서의 새나기 모습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공연 중에 많은 학생들이 지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 운영진의 미안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박정일(사상·비평)은 “공연장이 너무 좁고, 좌석이 매우 불편한데다가 공연내용이 생소하다”라며 새터 중앙공원 운영진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말했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대인이 외대인에게

용인배움터 중국어와 원어연극반



백경훈 (문학·중국어 2)

남상이라는 말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그 강당도 그 근원은 순산을 떠올릴 정도의 작은 물이었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남상’이란 단어에 연극을 의미하는 ‘연’을 붙여서 처음 시작하는 연극회라는 뜻의 ‘남상연’이 탄생했다. 남상연은 1998년 첫 배를 내렸다. 다른 학회들과는 달리 1998년 4월 학회보다도 중국어반의 중심에 서 있는 학회다. 98년 4월 연극 ‘발광’이 끝났을 때 시작으로 다섯 번의 연극과 다섯 번의 원어 연극공연을 치렀다. 연극이라는 것은 연기자, 연출, 스텝 각자의 노력과 필요하고 그들간의 조화가 잘 되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7년이라는 시간동안 10번의 공연을 치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남상연의 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반의 출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극 지도도 받아야 하고 공연의 조명이

나 음향기기 등을 구입해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었다. 학회원들의 의견 충돌 또한 남상연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었다. 1기부터 7기까지 이르는 학회원들 간에 많은 노력과 끈끈한 우정, 그리고 중국어반과 우리 학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이제 2000년 새로운 연극반의 시작을 맞는 시점이다. 우리는 새로운 학회원들을 맞을 것이며 새로운 주체와 보다 나은 구성과 연출로 남상연의 발전된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올 한해 더 힘든지 모르겠지만 변함없는 학회원들의 노력과 신뢰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00학번 신입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남상연의 입회는 대학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새나기들에게 보람되고 남들보다 더 멋진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00' 새터를 만든 사람들 - 풋풋함과 함께한 3일



아닐까? 하지만, 노래도 부르고 두부도 곱파한 차려짐의 홍일점 이화영(중앙·아랍어1)은 “나를 기억에서 지웠으면 좋겠다”라며 수줍음을 전한다. 새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많이 지겹고 따분하다고 말한 이화영은 민중가요와 율동에 대한 첫 느낌을 “낯설고 생소하다.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새터에의 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얻었다는 이화영은 “외대인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내가 섰던 대학에 대한 부끄러움을 새터에서 느꼈다”라며 새터를 돌아봤다. 또, 이화영은 “생소함 언어를 배우는 열의로움으로 화와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새터들과 어울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말하기도 했다.



“후배들을 보면 힘이 나요!” 율동계 신배의 패왕 왕창문(중앙·중국2)은 아직도 왕창문은 새나기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율동을 보여줬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에 어색

했지만, 자신감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율동계 정명애에게 말했다. 대학 문화를 처음 접하는 새나기들에게 왕창문은 “수줍은데다가, 외로운 생각을 버리고 대학문화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하기 바란다”라며 대학 문화의 주체는 새나기 자신이라고 말했다. 왕창문은 마지막으로 새나기들에게 “학생운동이든, 운동운동이든 사회의 편향한 시각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걸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새터 기간 동안 서울에서 낙남까지 외대인을 만났던 정명애는 새나기에게 “도둑질 빼고 다 해봐라”라고 말했다. 많은 경험은 그만큼 재산이 된다. 새나기들에게 경험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사회생활을 넓혀주고 싶었다.



96~99학번 때까지 사회과학계열로 신입생을 모집했던 신문방송학과가 4년만에 처음으로 정치행정계열과 신배로 분할 모집하며 새나기를 맞이했다. “사회계열 새나기로 입학했던 내가 처음으로 새나기를 받았다.”라는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이보현(3)은 들뜬 마음으로 새

터를 준비했다. 또, 회장인 나보다 9학년 후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라며 새나기들과 직접 후배를 맞이하며 반갑게 반납한 99학번 학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 “계열 모집은 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정치행정계열의 독립 움직임이 있다면 함께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새나기들에게 “새배들과 반도 같이 새고 토론도 하면서 대공통체 문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각자의 장점을 공동체 안에서 개성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잘라! 새나기이고 새나기!” 새나기들을 보면 10년 전 발고하고 활기찬 자신의 신인 시절이 생각난다. 새나기 대표 강창구(2)씨는 힘들었던 새나기였음을 회상한다. 새나기를 보면서 “내가 새나기였을때와 변한 것은 머리 색깔이다. 신선함과 청년의 기상은 변한 것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래를 통해 주연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알리려고 했다는 강씨는 새나기들에게 “대학문화에 대한 주제적인 접근, 즉 적극적인 발언을 하라”고 말했다. 또 새나기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고민을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자기가 주연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의 신선함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고, 항상 조국을 생각하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



“비전을 가져라.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대학부터 다시 시작이다” 새나기에게 신인함을 계속하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새나기 이전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을 과감히 벗어나기를 주문하는 조수는 개성 못지않게, 선·후배 간의 조화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기의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외대에는 것을 환영하며 남들이 배우지 않는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며 새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캠퍼스 예비군 대원 신청 안내

2000학년도 1학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등록금 납입후(복학자) 다음과 같이 예비군 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

가. 대상 : 복학, 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수전공,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자
나. 구비서류 : 예비군 병검보류원서(비상계획관실 비치)
학적변동 신고서(교무처 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학과 발행),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및 원격 복학자는 제외)

2. 전출신고

가. 대상 : 휴학, 자퇴, 제적, 졸업자 (일반 직장대 편성 대상자)
나. 구비서류 : 학적변동 신고서 (교무처 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학과 발행)

* 기타 문의사항
학생회관 1층 학생처 및 비상계획관실 문의
전화번호: 961-4145~6 FAX: 963-7334

2000. 2.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예비군 대원 신청

2000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신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

가. 대상 : 복학, 편입, 복수전공자 및 (재)입학생
나. 지참물 : 등록금 납입영수증, 학적변동 신고서 (교무과 발급)

2. 전출신고

가. 대상 : 졸업 및 휴학자, 취업 및 대학원 진학자
나. 지참물 : 휴학 : 적전변동 신고서 (교무과 발급)
졸업 : 주민등록 주소 변동자 (비상계획관실 비치)

3. 신고장소

· 위치 : 비상계획관실 (승차장 및 정보산업관 510호)
· 대원신고서 접수는 추가등록 마지막 이후 14일까지만 받음
· 연락처 : 0335-3300-4111, 4119

2000. 2.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만남은 알리안스 프랑스에서

alliance française
'2000년 3·4월 학기 개강 : 3.6월'

BEF II, MA II, REL I, H. PAN I II, ESP II, 자유회화반, 시사교양반, 통역반, 독해·작문반, 현대기초문법반, 학원수업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문법·회화 주일반(토) 개강”

'2000년 일일강습 주일반' 시작

·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수 발급
· 수업 무역 불어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수 수여

연수, 유학생 및 유수대원

· E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안스에서 꼭 공부하세요.
2000년 봄·여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755-4972, 5702(중구)
nam-seoul
555-1125, 1126(강남)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국제학교
(매주 100여명 수업 100여명 수업 22시간)

Alliance Française

922-0017(7)
전통어학원
전통어학원

학술단신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개최

우리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오는 29 일(화) 오후 1시부터 서울대출판국에 건물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학술학술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의 후원 아래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수민족정책과 국외교포정책'에 대한 주제로 열리며 2 회로 나뉘어 열릴 예정이다.

제 1회는 '중국의 정책'을 주제로 이영구(중국어과 교수, 중국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조선족을 중심으로 황유복(중국 중앙민족대 민족학연구소)과 교수

△중국의 재외교포정책 양영민(중국 북경대 화교학연구소 부주임)의 발표와 이재광(인하대 중국어과 교수, 조흥국(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 2회는 '러시아의 정책'을 주제로 김현태(노어과 교수, 러시아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러시아의 소수민족정책: 고려인을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리(러시아 국립외교아카데미 아시아 태평양연구센터 소장)

△러시아의 재외교포정책 니콜라이 부가(러시아 연방공화국 연방 및 민족관계부 국장)의 발표와 반병철(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고재남(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문의: 외국학종합연구센터 (0335)330-4802(연구부장실), 4856(중국연구소), 4852(러시아연구소)

정치외교학과 지역연구전락
제 5차 기초세미나 열려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지역 연구전락개 발팀은 오는 29일(월) 오후3시 교수회관 2 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연구전락 제 5차 공개 기초세미나를 갖는다.

'지역연구의 방법론적 쟁점과 사용개념의 동등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김용진(국외연구소)의 강의로 진행된다.

우리학교 대학원 불어과
동계세미나 개최

우리학교 대학원 불어과는 지난 29일(목) 대학원건물 418호에서 2000학년도 동계 세 미나를 개최했다. 식은은

△오후시: 불어 문헌사에 관한 연구 최 부경(석사과정)

△오후시: 주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변광배 교수

△오후시 4시: 알미미스의 시에 관하여- 이 진홍 교수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운동

비도덕적인 정치에 가한 국민 테러

공천기준 확대, 실질적 유권자들의 조직적 참여 계획 개발에 성패 달려

정치적 대사진, 시대의 흐름, 시민혁명으로서가 지 불리워지고 있으며 각계 각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460여개 단체를 망라한 2천년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초기에는 부패정치인 낙선, 낙천 명단발표로 시작, 점차 대규모적인 집회, 시위, 거리 시위운동, 지역순회 집회,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대중적인 반국민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노총, 서울대 등 노동계와 학생들도 적극 합세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운동은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불러일으 키고 있는 반면, 정치계에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까지 안겨주고 있다. 각계 사회단체들의 명 단이 시시각각 발표되자 여야 정당들은 '신뢰성이 없다' 혹은 정치적 음모로움을 제기하기 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권이 주어진 보 수언론마저도 새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열기 앞에서 낙선 운동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공 석화할만 보인다고 공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는 이같은 낙선낙천 운동의 본질은 결국 정권의 정치적 불감증에 대한 각계의 울분과 폭발이며 새정치 세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인 것 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 선, 낙선운동 설립취지를 해부해 보자면 이들은 첫째, 식물국회, 파행국회로 정렬된 15대 국 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제점을 이미 넘어 섰다는 데 있다. 정치권은 스스로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며 다른 모든 개혁추진의 장애물 이자 병목지대가 되어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낡은 봉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구적 행동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부패 중심 의 정당정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정당 및 국 회 운영, 국회 연고에 의한 공천 등으로 인해 유권자가 사실상 '무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무 어보다도 막아야 한다는 데 있다.

셋째는 새 미래대전의 정치적 화두를 낚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 심판으로 바뀔시기가 성숙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경선거 감사나 의정 모니터링 넘어서는 정지언에 대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필요성을 인지한 데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최근에는 선거법 87조 등 유권자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법칙,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 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개정선거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월 9일 통과되어 총선시 적용될 개정 선거법의 제 88조가 헌법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를 침해하였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정치인, 부패 정치인, 반개혁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은 국민참정권의 기초이며 이를 막는 악법과 독소조항들은 폐지되어야 함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법에 대한 확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급격한 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준법운동을 통해 자신 의 기본권을 다졌던 시민사회운동이 과감하게 불 법운동으로 선회한 것이다. 부분별 다양한 이 해관계에 대립함으로써 그 맥을 이어왔던 시민 사회운동이 자기 행위를 조금씩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현사회의 위기는 정권적 개 별인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라는 우리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오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국회의 원의 자질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나무의 꺾기자를 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시장개혁과 참여 민주주의를 내칠고 위기를 수 습하려는 정권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 게 재확인한다. 실제로 낙선낙천운동의 파고다 가세어지자 정부에서는 '내대적자 사정개혁' '시민사회 도서관 건설' 등의 갑작스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시민연대가 받고 있는 이 운동의 성패는 유권자의 참여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사회단 체들의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권자들이 국 민행동을 조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작 은 실천에서부터 정국적 단위의 시민행동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유권자 참여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낙선, 낙천 운동은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정세윤 기자
cedes98@hanmail.net

이건화가 포주?

○...무도조 신화를 지향하던 초입류 기 입 삼상에 반기를 돌려 일어 선 사람들이 있다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삼상은 무도조 신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낚시, 감금, 화유, 탐학, 삼 지어 윤락까지도 제공했다고...

이해 크로니클러 "김장자 풍요정향사장, 요즘 미라이 윤락이 단속에 비브시죠? 재 보 하나 하겠습니까. 삼상의 이진화를 포 주로 고발합니다!"

(남)

○...통국대 새내기 세로 배움터 준비단 이 세터 장소로 가던 도중 버스가 계곡으 로 떨어져 7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측근 은유리후어, 통 일관령은 잘못을 뒤우자기보다는 학생측 에 책임을 전가시켜 한타기에 우리 크 로니클러 한타다.

"안전 불감증인 운전기사 아저씨, 운전 새로 배움터 보내야겠군"

(정)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된 1999 민족통일대추전 남측추진본부 대변인 박



해정제. 그의 연행 과정에서 경찰은 8시간 이의 열쇠를 빼앗아 강제 연행했다는데... 당시 현장에서 8살 아이가 하는 말. "우 리 집에 도둑이 들어요! 8살 아이의 눈 에 비친 경찰의 모습이다."

(통)

○...쓰레기 분리수거가 국민운동 차원 으로 벌어지면서 '난지도쓰레기'가 반성했 다기에 우리 크로니클러가 반성했 다기에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자 외에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아이를 우선시 하지 않는 사람까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자각대발되는 사람들이 넘쳐나 다는 것. 이에대해 크로니클러 한타다

"재정적, 세사회만 만들 수 있다면 내 앞마당에 난지도를 또 만들지 뭐!"

(애)

내집에도 난지도를

학술부

이 책

다시 돌아온 콜럼버스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복제양 '돌리' 탄생, 유전자 조작 풀 수입 논란, 유전자 조작 두부 파동, 이어지는 생명 안전관리(연미모임 조직), 최근 1년 동안 '생명공학'에 관한 세계적 화두를 던져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특히, 지난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 수 민명의 민중들이 반대를 외친 WTO 리운트 데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의 국제 무역거래 및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반대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크게 반박되 지 않았지만 실제로 제1세계에 의한 제3세계 의 풍부한 유전자 자원에 대한 약탈을 가는 케 하는 WTO 지적재산권협약(TRIPS)에 대한 비판과 개정의 요구가 거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GMO가 사회적 이슈가 된 시기에 '네팔나 시바(Vandana Shiva)'가 쓴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을 새싹이 사지런히 얼마 안된 한 시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 학을 앞세운 초국적 기업들의 약탈을 고발하 기 위해서 쓰여졌다.

반다나 시바는 환경·여성인권·국제문제 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선구자의

인 사상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인도에서 다국적 기업의 실패과정에 반대하는 철폐문 동(diplo moment)을 조직했으며, 제3세계의 생물 다양성 문제와 다국적 기업의 생물해적 점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그녀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왕으로부터 '발견과 정복의 특권'을 부여받고 기존 토착 민들에게 그 어떤 합의나 계약 없이 1년 만에 무려 300여명에 해당하는 생과 본토를 함 게 점령함으로써 제3세계의 생물 다양성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그 시대로부터 500년이 흐른 지금 독점은 신화와 프록테르가 '독'과 '지적재산권'을 통해 훨씬 더 세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비유로 서론을 열어제었다.

이 책은 유전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생물다양성과 그것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은 토 착민들의 지식체계가 갖는 중요성 및 그들의 권리, 파괴와 갈등을 분석하고 평화로 건설하기 위한 토대가 될 문화적 다양성의 중 요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의 필연적인 연관관계,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다

수 고해드리요
·넬랜드리와 세타를 다녀오신 재학생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표)

연락처: 학생회관 지하 06호 FROMNOW
016-226-6974, fromnow@fromnow.hufs.ac.kr
(FROMNOW)

축하합니다

·윤경호와 경운이행이 결혼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있을 것이지만 슬픈 일도 있을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의 사랑과 지혜로 가볍게 이겨낼 거란 믿음이 생깁니다. 결혼식장에서 새생기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12대 언론회의 이그릴)

·홍성진, 상준이행, 화영이행 졸업 축하해요! 저에게 보여주시 사랑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졸업 정말 축하해요!
(호풍)

왕 산 골

말립니다

·FROMNOW!
동유럽국가들(중국포함)의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외에 내 정보제공자여입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 모집 합니다. 외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본교 내 2학년 이상 학우 (어학·지역학·인터넷 관 련분야에 심취 있는 학우)
분야: 어학·지역학·시스템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고 싶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지사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비둘기칠판

이문 별

말립니다

- 외대동맹협회 제 21기 정기 신입회원 선발합니다.
- 응시인원: 외대에 개설된 모든 언어
- 응시자격: 외대학부생이든 누구나, 2000년도 상반기 졸 업예정자 제외)
-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처: 외대동맹협회 (학생회관 204호)
-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기간: 2000년 3월 6일(월)부터 20일 (월)까지
- 시험일시: 3월 21일(화)
- 문의처: 968-6377, 963-6833
- 1차 시험통과자에 한하여 2차, 3차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외대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외대동맹협회)

·서울북부 청소년학교에서 함께 일할 교사들을 찾고있습니 다. 빠른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함 게 하는 곳에서 생활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연락처:993-2626 (74 이후)

(서울북부 청소년 학교)

·ROOKIES 신입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이어 야 한다! 을 시운 사화인 아구리그인 한메이그에 참가가 확정된 ROOKIES에서 실력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격: 외대학생 및 졸업생
연락처: 017-556-6537

(ROOKIES)

·올해 동역대학원 한독과 입시스터디 같이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011-269-9294예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동역대학원 입시생)

·새내기 동아리 한타당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어떤 옷을 드 려요. 961-4448

(제 17대 불꽃 동아리연합회)

수고하셨습니다
·넬랜드리와 세타를 다녀오신 재학생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그리고, 과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표)

축하합니다

·윤경호와 경운이행이 결혼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있을 것이지만 슬픈 일도 있을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의 사랑과 지혜로 가볍게 이겨낼 거란 믿음이 생깁니다. 결혼식장에서 새생기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12대 언론회의 이그릴)

·홍성진, 상준이행, 화영이행 졸업 축하해요! 저에게 보여주시 사랑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졸업 정말 축하해요!
(호풍)

왕 산 골

말립니다

·FROMNOW!
동유럽국가들(중국포함)의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 는 외에 내 정보제공자여입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 모집 합니다. 외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본교 내 2학년 이상 학우 (어학·지역학·인터넷 관 련분야에 심취 있는 학우)
분야: 어학·지역학·시스템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고 싶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지사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656+1=8?

19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1999년 10월 현재까지 약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의해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거두었다.

1994(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클럽 '뉴 아미콘'에서 종업원 김 모씨(32, 서울 용산구 보광동)가 주한미군 47기갑대대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22) 상병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발견 당시 김씨는 얼굴과 목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클럽 내실 침대 위에 얼굴을 쓰러져 있던 것을 클럽 주인 배영(57·가)가 발견하여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사건발시 매카시 상병은 도주했으나 김씨의 동료인 이모씨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배영 남성 한 명을 나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당시 그 배영 남성은 이씨의 목을 톡 치고 나갔다는 증언과 당시 방에서 음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군용 트래닝복(Training)과 캔디, 그리고 커다란 배낭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동투천에 있는 캠프 케이스(Camp Casey) 명의로 2월 2일자 전술안 내시, 전사장이 들어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미국군사대(CID)의 합동수사로 매카시 상병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매카시 상병은 실제 동기에 대해 "사건 당일 술집 내에서 김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반체제 성행위를 요구한다" 김씨가 거절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매카시 상병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신병인도 후 한국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지만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기도 광복 미군지사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현행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뒤에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과 미군속(미군의 가족) 피의자의 경우 미군 속의 동거가 없으면 한국 사법당국에 의한 구속수사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정부는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이 요청하면 재판권 행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행정협정의 불분명함으로 지난 96년부터 지난 9월까지 범죄연루 미군은 66명인데 반해 구속자는 고작 7명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법무관실은 동맹부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속의자를 검거해도 현재의 불분명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는 한국 측이 법인의 신병인도 조차 할 수가 없어 재판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한미행정협정의 개편을 주장했다. **사회부**

99 범민족통일대축전' 남측추진본부 대변인 박해전씨 구속

“세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지난해 8월 15일에 있었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범추본)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해전(한겨레신문사 교열부장직·46)씨가 지난 2월 8일 자택에서 연행됐다.

박씨는 대해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창창조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한겨레신문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6개월에 동안 농성을 진행하던 중 지난 1월 26일 타계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광우 상임부의장의 장례에 참가하기 위해 자택에 있던 책 채워졌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화살을 머리에 끼고 귀머거리 박씨의 통화에 이한길(공군)의 열사를 강제로 빼앗아 문을 열고 박씨를 연행했다. 박씨의 아내 신영희(43)씨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의 열사를 어떻게 강제로 빼앗아 연행할 수 있겠냐"며 연행과정에서의 폭력성을 이하였다.

박씨는 범민족통일대축전의 대변인으로 모든 사의 단체가 모여 범민족통일대축전을 치르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기구로 여러 차례 범추본 행사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대변인이란 자격이 없었다. 이번 10차 범민족대회에서 대변인을 내세운 이유는 장부와 사회단체간의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며 박씨 또한 친화대 김성제 민정수석(원)을 통해 박씨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다.

이에 박씨의 연행소식을 접한 일간지 민주와 실천(자유민주주의)의(민간) 상임의장, 권오연 양심수후회회 회장, 이은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대변인장년남 부의장, 김승교 민주



박해전씨의 부인 신영희씨는 박씨의 구속에 대해 '민간통일운동 탄압이다'라고 했다.

사회통합위원회(사회통합)소속 변호사 등 재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곧바로 유권자 대공본으로 찾아가 박해전 기자의 연행을 규탄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해전 기자 연행의 부당함을 항의하러 온 한총련 소속 학생 30여명에 경찰대원이 폭력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진 자택의 비안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이 부상당하고, 윤상일(연세대 4군)이 사대문 경찰사로 연행, 구금되었다.

연행 후 박씨는 3일간의 단식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연행에 대해 항의했으나 구속자보상금과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어 구속이 확정되었다.

박씨의 아내 신씨는 "이것은 개인의 탄압이 아니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국가보안법은 유권 인권이사회에서조차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한계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박씨는 면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알리며 강제대응을 비롯해 범추본, 검찰 등 공안기관을 한발과 국제법 위반으로 한발재판소, 국제인권위원회, 국제법률, 엠네스티, 국제사법원, 국제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이 후의 대응에 대해 밝히고 "민에 대한 탄압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의지하는 민간인단체를 완전 단절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민간통일운동방정 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수감 생활에서의 활동상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박씨의 연행에 대해 민중의기본권보장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사 노동조합 등 각계 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씨가 투쟁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한겨레 기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는 것은 조국통일운동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운동 구원을 위한 언론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다"라며 박씨의 연행을 규탄하며 빠른 석방을 촉구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법규이며,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에 위배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지탄이 되고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최호녕 기자**

97기 전국연합 출범 오종렬 상임의장 재임

97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출범식이 지난 20일 동국대에서 1천여명의 대의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과 회(대회)와 함께 열렸다.

오종렬은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 본미대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위원장인 전국연합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분단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며 "노동자를 또한 통일운동의 주체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대사를 대신했다.

97기 전국연합 의장으로는 이천재, 노수희 공동의장과 오종렬 상임의장을 선출했다. 이에 오종렬 상임의장은 "올해는 주한미군 철거 북·미 평화협정체결로 연방제통일을 이룩하는 해로 만들자"며 출범을 선언했다. 한편 지난 범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전국연합 대표로 임명을 통해 방북했던 대표단은 "지난 전국연합은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운동의 원리인 조국통일방향을 전개했다"며 올해도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대우자동차 총파업 결의

지난 2월 15일 부평역에서는 대우자동차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민적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대우자동차 해의매극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우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민적시민대책위는 △노조분열한 해의매극 반대 △대우 자동차 치리 문제의 공개화 △대우자동차 정실화 방안 수립 △DMF제정 찬성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자동차 4사의 노동조합은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리고 투쟁에 돌입, 대우자동차는 지난 1월 말 해의매극 반대를 위한 정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이상의 투표율에 83.5%의 찬성율로 정의행위가 결의됐다. 이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이후 민주노동, 금속연맹과 함께 3월달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방북대표 공판, 실형 선고

지난 해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던 방북대표 6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5일 있었다.

담당판사는 방북대표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형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는 '현 단계에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임을 무시하고 북한의 치밀한 계획과 일방적 진영으로 일관된 반미군대외에 참여한 점'과 '대남적화노선과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확립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건설구축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회합, 통신, 찬양교두, 잡인, 탈출 등의 조항을 위반' 하였으며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형을 위해 이루어진 방북은 정당하다"며 방북대표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방북대표 6인에 대한 공판결과를 다음과 같다.

△리창순(범민족통일본부 대표) 징역2년6월
△지정정지2년 △이성우(전국연합 대표) 징역2년6월
△지정정지2년 △사원철(방북위원장) 징역2년6월
△한창호(한총련 대표) 징역2년6월
△박기수(전국연합 대표) 징역2년6월
△김영우(3년 △강원구(전국연합 대표) 징역2년6월
△김영우(3년 △강원구(전국연합 대표) 징역2년6월

삼성그룹에도 복지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성현씨를 만나

무노조 신화뒤엔 납치, 협박, 감금, 회유...



"더 이상 일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초일류 기업이라 말하며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던 삼성그룹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삼성그룹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천정기, 삼성증권, 양산 삼성SD,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에서 재해직원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삼성그룹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삼성 해복투)'를 설립하고 삼성 그룹의 노동조합 건설과 복지 등을 요구하며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삼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은 임금도 잘 올려주고 조건도 좋으니 노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삼성 해복투 위원장 김성현(43)씨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임금이 체납되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손에서 피가 쏟아져도 해적이 두려워 회사측에 알리지도 못한다"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96년 11월 이천정기에서 노사협의위원으로 일하다 해직된 김씨는 3년이 넘게 삼성그룹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이천정기는 퇴직기업으로 선정된 후 회사측에서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정리해고를 명목으로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라며 회사측의 해직에 대한 예로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온갖 나쁜 짓으로 만들려 하니까 하고 만들려고 한 사람들은 해직시켰습니다"라고 했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의 뒤에는 온갖 회유와 협박, 공갈, 사기,

납치, 감금, 인건의 도덕성 파괴 그리고 심지어 윤락까지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결성을 저지했다. 또한 유령노동조합을 만들어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결성되도록 되어있는 법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았고 삼성 그룹의 계열사인 에스엘(세움)을 이용하여 노·노간의 싸움을 일으켜 합법적인 권리를 유도하면서 무노조 신화를 이어간 것이다.

이러한 삼성의 탄압과 해고에 대한 항쟁 해복투는 ▲노동조합의 인정 ▲노동조합, 주요 조정 관련 정제, 해고의 원자·복지 ▲무노조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반민중적이고 친재벌적인 정권의 잘못이지, 지금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경제를 맡아먹는 경제 모라배들과 정치를 잘못한 정치가들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라며 경제개혁과 결탁한 정권을 규탄했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3@hanmail.net

그·림·타·레 <10>



외대인도 낙천·낙선운동에 동참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외대 1만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1. 물론 부정부패 경력은 안됨.
2. 선거법도 잘 지켜야
3.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4.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사람
5. 전쟁과 매결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사랑하는 사람
6. 남북 통일을 위해 힘쓴 사람
7. 다른 나라에 아부하지 않는 사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자진 낙천해 주십시오.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가상일기 · 정시원의 하루

우리 학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2000년 3월3일 오전 7시의 모닝콜입니다. 기상하십시오."

아직 입학하면서 배당 받은 개인 컴퓨터에서 어제 저녁 일찍에 놓은 모닝콜이 울려 퍼졌다. 어제의 입학식이 끝나고 오빠님들과의 대면식을 마친 후, 기숙사의 내방으로 돌아와 단잠에 빠진 후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 나를 캠퍼스인 음악이 나의 방 문을 배회하 열면서 나의 첫 수업인 1교시임을 경조했다. 입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제 1강당에서 3D를 통해 학교 모형을 보여 줌으로써 건물 곳곳에 대한 설명을 받았지만, 그때는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얘기를 하느라 잘 들지 못했다.

마침 어제 만난 이우범 선배가 아침밥을 사 갔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선배에게 학교 소문을 부탁해서 "리"고 생각하며 내방을 빠져 나왔다. 열쇠는 필요 없다.

현관 옆의 자동자문인식기에 손가락만 대면 문이 켜지고 열린다.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메뉴 선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저쪽에서 '이이~' 하는 낯익은 굵은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우범 선배였다. 선배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내가 아직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으니,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물론이지!" 나의 요청에 선배는 흔쾌히 허락했다. 식당은 철저한 자동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컴퓨터로 자신이 원하는 메뉴와 양을 선택해 식당으로 보내면 그만큼의 음식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음식 선택기가 줄 수 있다고 한다. 아침 식사 후 선배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 학교에서는 일회를 사기가 없으며, 커피는 개인용으로 사용한다.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나는 커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커피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돈을 내고 커피를 빌릴 수 있다. 커피를 더 쓴 후 다시 컵을 돌려주고, 돈을 되돌려 받는다.

대학에서의 나의 첫 수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설명에 따라기로 나가는 문을 통과했는데, 저쪽으로 푸욱 줄지어 서 있는 자전 거북이 보였다. 자전거 장거갑이다. 우리 학교에는 각 건물마다 자전거 정거장이 하나씩 딸려 있다. 차는 학교안까지 들어올 수 없고, 학교 밑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다.

나와 선배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올라갔다.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로 달려가는데, 아직까지 겨울기운이 채 가지는 않은 아침기가 내 커피를 스친다.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간다. 위쪽으로 높은 빌딩의 커다란 건물 하나를 보았다.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있던 우범 선배가 뒤를 돌아보며, 그 건물 앞에 자전거를 세워주고 외치고 있다. 자전거 정거장에서 자전거를 세워, 우범선배는 그 건물에 '스포츠센터'라고 설명했다. 거기에서는 수영만 안아 나리,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실내 골프 볼링 등과 같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각종 레저 시설이 되어있고, 운동도 행해지 되는 정도, 유도, 태권도, 유평트 등과 같이 동아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되어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있어, 약간의 돈을 내고 회원이 된다면, 그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선배와 헤어져 스포츠 센터로 들어온 나는 넓은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다. 오후 수업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우선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후복관'이라는 건물을 찾았다. 물론, 흡수권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구석구석 학교 구경도 하고, 여러 시설들을 눈에 익히듯이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일금액이 할인되기 때문에, 학교 외의 일반매장보다 인기가 훨씬 높다. 회원 아이디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가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발급된다고 한다. 후복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의 200년 전 당시의 건물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때의 후복관은 단지 슈퍼의 기능만을 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학교안에서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되어 있다. 후복관은 그저 편의점 정도의 이름이고, 그 편의점 시설 주위에 편의점의 물건이고 패스트 푸드점, 옷점, 서점, 안경점, 꽃점, 술점, 음식점, 영화관 등이 자리잡고 있어서 학교 주변의 지역 사람들도 학교로 들어올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험한 지역의 지역사회의 연결이 되는 대학이라는 것이다. 아까 내가 수영수업을 받았던 스포츠센터의 여자 활동뿐만 아니라, 후복관에서의 편의점, 그리고 학생 아파트 바이트 자리까지 우리 학교는 이 곳 주민들의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적 연결은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것이 바로 이 학교를 포함한 모험한 지역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아침! 내일 있을 '일본 사회와 문화' 수업을 위하여 책을 빌려야 한다. 교수님이 수강생 전원을 매달 매달 보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별로 놀지 않은 도서관 본관 현관에 도착하자 눈을 가까이 대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증이 필요했다. 학생증의 눈으로 컴퓨터가 본인임을 직접 확인한다. 책을 빌리려 하니 안내 데스크의 한 근로장학생인 듯한 학생이 설명한다. 굳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책을 볼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복사도 가능하다고 한다. 책을 빌리기 전에 학생들은 자신의 기숙사에서 개인 컴퓨터로 도서관 상태를 알아본 후 컴퓨터 입체으로 책을 빌린다. 책의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복사하고 싶을 경우에서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

미 책 내용은 컴퓨터에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컴퓨터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부분을 다른 받아 복사하면 된다.

또한 다음을 받을 때 이미 자신의 이름과 학과 학번이 적혀져 되므로 보고서를 쓸 때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고 주의를 준다. 도서관을 빌릴 수 있는 본관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자리가 충분해서 학생들이 아침부터 일찍 자리잡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괜히 도서관을 찾은 것 같아서 먼저 선배에게 조언을 구할 걸 그랬다고 속으로 후회했다.

할 일이 없어 과방을 가기 위해 자전거에 다시 오른다. 올라가는 길은 말지만 그만큼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 호수를 지나니, 이름을 붙였는데 앞에서 신입생인 듯한 애들이 '범수당'이라고 한다. 그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 신기하다. 그 호수 뒤쪽은 우리 학교의 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육장이 있다. 그곳에서는 닭과 오리, 경 토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오리들은 남자가 따돌려지면 그 호수 위에서 헤엄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범' 좋은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호수를 지나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팔짱 끼고 있는 듯한 곳에서 팔을 걷은 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유심히 보았다. 사람들이 발을 가두고 있었다. 그 발은 각 학과마다 배분 받은 땅인데 그곳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다고 한다. 우리 과도 땅이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황을 수 없었다.

자연을 먹고 난 후 이우범 선배와 함께 명수당 공인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후복관 뒤쪽으로 뻗아져 있고 있는 노을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빨간 모자를 쓴 한 꼬마에게 "선생님!..선생님!.."하고 외치며 우리 쪽으로 막 손을 흔들고 있었다. 깜짝 놀라 선배에게 물어보니, 선배가 아파트로 옆에 있는 기르치고 있는, 모험에 사는 꼬마아이라고 한다.

선배는 축소를 통한 미소를 지으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다고,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니 너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한다. 모험 주변 지역의 아이들을 모아서 학과를 따라 과학이나, 영어, 역사 등 자신이 많은 분야에 대해 심화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 일은 이 학교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와 감탄을 감출 수 없었다.

선배와 헤어진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학생과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또 우리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우리학교라고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시 문 열므로 심심치 않게 느끼는 것이다.



사친수필

"내일이 99학번 000입니다"라고 속삭임에 여기하면 그때,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믿음을 이제 00학번 새내기들에게 마음껏 주지라는 마음으로 새터 준비반 버스에 올랐을 그들. 구슬땀 흘리며 준비했던 새내기 환영 공연, 즐겁고 환한 새내기 세로배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던 자들. 미시할 계곡의 차가운 흙바닥 속에서 사탕을 사탕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씩 숨이 멎어간 얼굴의 얼굴들. 그들의 열정을 읽는다.

통곡대 세터준비반인 사탕학부 영인 앞에서

사친부 hyondeng@hanmail.net

꽃씨 같은 꿈 하나씩을 키우자

김윤호(시인, 대학원 행정 박사과정)

검푸른 파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에 떠오르는
새천년 새 아침
아름답게는 태양이여

용맹한 고구려 용사
말 달리던 광활한 만주벌판
지평선에 떠오르는
용트림하는 붉은은 태양이여

1·2차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쟁
거대한 삼육의 피바람을 뚫어서
평화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었고

일제 식민의
암박과 설움 끝에
삼천만 민족해방은 왔으나
분단과 동족상잔으로 초토화된 한반도

독재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제 5천만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신진 자유민주 복지의
새천년 새날이 동태하고 있다

눈물이라는 백두산 천지에서서
글쎄 피어나는 만주벌판에서
침묵은 북극 동로 보듬고
새 바람 해방을 출 때까지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자

침천만 동포여 사람들이여
우리 가슴 속에
꽃씨같은 작은 꿈 하나씩을 키우자
남마다 물 주고 눈길을 주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버려
새천년 세 세기
새해 새 아침에
꽃씨같은 꿈 하나씩을 키우자

9.8%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되면 그 등록금은 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학년 250만원

2학년 198만원

3학년 198만원

4학년 204만2천원

사립대학의 지정부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본문 교육에 대한 인적적 책임을 가진

국립과 국가로부터 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립대학 지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 사립대학들은 '국가인식'을 이유로 대대 모든 부담을 우리 학생 등록금에만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공약인 교육재정 6% 확보 및 재원전입금 확충 없이는

대학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9.8%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으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등록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개하고 감시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인적재정위원회
외대파노